

# 호시노재심 뉴스 204 후 2014 년 5 월 15 일발행



호시노(星野)씨가 그린 이번 달의 그림  
『미래에, 미소의 어린이들』



전증거공개·호시노(星野) 후미아키(文昭)씨 해방 4·12 호시노(星野)전국토론회

발행 호시노씨를 되찾자! 전국재심연락회의

연락처 〒105-0004

도쿄도 미나토구 (港区) 신바시(新橋) 2-8-16 이시다(石田)빌딩 4층

2-8-16 Sinbashi, Minato-ku, Tokyo, IshidaBldg4F

TEL 03-3591-8224 FAX 03-3591-8226

e-mail :qq8ucd9@dream.ocn.jp URL <http://fhoshino.u.cnet-ta.ne.jp/>

# “모든 증거를 내나라”는 전인민의 목소리

## 6.29 전국집회에 전력으로 결집을

### 호시노씨“제 2 류”로 진급

4 월 호시노 후미아키 (星野 文昭) 씨의 옥중 처우가 “제 2 류”로 진급했습니다. 한달에 세번이었던 면회가 다섯 번으로 편지의 발신도 다섯 번에서 일곱 번으로 늘어났습니다. 아키코 (暁子) 씨는 “마음에 여유가 생겼다. 후미아키를 되찾을 때가 가까워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며 기쁜 마음을 이야기 했습니다. 호시노 후미아키 (星野 文昭) 씨의 불굴하고 원칙적인 옥중투쟁이 노동자 민중의 싸움의 전진과 하나로 드디어 토쿠시마 (徳島) 형무소의 진급방해 탄압을 타파한 것입니다.

2014 년은 스즈키 (鈴木) 변호단장이 입후보한 토우쿄우 (東京) 도지사 선거의 싸움 호우세이 (法政) 대학 폭처법 재판의 무죄확정 토우쿄우 (東京) 서부 유니언 스즈키 (鈴木) 콘크리트공업 분회의 해고 철회 대승리 그리고 하카마다 (袴田) 사건 재심개시 결정과 계급적인 힘관계를 바꾸는 승리를 계속해서 쟁취하고 있습니다. 더욱해서 호시노씨의 옥중 권리를 획득하는 투쟁을 불굴의 의지로 관철해 왔습니다. 전국 노조교류센터와 함께 두번에 걸친 토쿠시마 (徳島) 형무소데모 2.9 시부야 (渋谷) 대 데모를 했습니다. 친구면회 거부나 아키코 (暁子) 씨의 편지막칠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을 제소해서 탄핵해왔습니다. 토쿠시마 (徳島) 구하는 모임을 선두로 몇번이나 토쿠시마 (徳島) 형무소에 신청을 했습니다. 또한 모든 증거개시운동의 발전이 토쿠시마 (徳島) 형무소를 몰아넣어 “제 2 류” 진급을 쟁취한 것입니다. 이 승리를 발판으로 2014 년 호시노씨 해방을 향해 돌진하자.

### 호시노씨 해방을 위해 열렬한 논의

4 월 12 일 “모든 증거개시 호시노씨 해방 전국토론회”를 시부야 (渋谷) 근로복지회관에서 실시했습니다. 전국에서 60 명이 참가해 호시노씨를 되찾기 위한 여름에서 가을의 대방침에 대해서 열렬하게 토론했습니다.

스즈키 (鈴木) 변호단장이 모든 증거개시의 의의에 대해 전면적으로 제기해 호시노씨 탈환의 전망을 명쾌하게 가르쳤습니다.

기본보고는 사무국의 카나야마 카즈미 (金山 克巳) 가 했습니다. 우선 하카마다 (袴田) 사건 재심개시의 승리를 확인하고 이를 이어가자고 제기했습니다. 더욱해서 2 월 도지사 선거를 시작으로한 1 월~3 월의 싸움을 총괄해 개헌.전쟁으로 돌진하는 아베 (安倍) 정권을 쓰러트리자고 호소했습니다. 투쟁의 방침으로서 제1로서 국철 10만 서명을 완수해 6.8 집회의 성공을 쟁취하는 것 제2로 모든 증거개시 대운동을 발전시켜 6.29 호시노 전국집회를 공전의 결집으로 성공시킬 것을 힘차게 호소했습니다.

아베 (安倍) 정권의 전쟁과 개헌공격의 격화 외주화.비정규직화 고용해지.해고공격의 바람이 세차게 부는 가운데 노동자 민중의 분노는 끓어 오르고 있습니다.

이것과 하나로 증거를 날조해 증거를 숨기고 꾸며내는 행위를 하는 국가권력에 대한 분노가 퍼지고 있습니다. “모든 증거를 내나라”는 전인민의 목소리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모든 증거개시 운동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 호시노씨에 대한 날조를 전면적으로 밝혀내자.

작년 12 월의 삼자협약에서 사진 원본의 개시권고를 쟁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관은 아직도 증거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탄핵의 투쟁을 강화해 즉시 제출 시키자. 이를 돌파구로 검찰관이 숨기고 있는 모든 증거를 개시 시키자.

## 4.6 호시노 재심집회

### 증거개시와 호시노재심의 현단계

재심변호단 사카이 타케오 (酒井 健雄)



4 월 6 일 아사가야 (阿佐ヶ谷) 지역구민센터에서 "4.6 호시노 재심집회"가 개최 되었습니다. 이 집회에서 재심변호단.사카이 타케오 (酒井 健雄) 선생님의 강연요지를 보고합니다.

#### 확정판결은 흔들리고 있다

이 사건의 특징은 하나는 증거의 구조상 같이 있었던 사람 ("공범자") 의 홍술조서 밖에 없고 물증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공범자홍술"은 가장 위험하며 원죄를 만들기 쉬운 증거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정치적인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키나와 (沖縄) 반환을 둘러싸고 일어난 사건으로 호시노씨는 리더였습니다. 아베 (安倍) 정권의 개헌.전쟁공격중에 호시노씨를 내보내기 싫은 것입니다.

확정판결은 "열은 갈색"의 복장으로 호시노씨를 "구타자"라고 특정한 Kr 홍술을 핵심증거로 두고있습니다. 제 1 차 재심청구에서 최고재판소의 결정은 복장의 색깔이 잘못되었다는 판결이었습니다. 본래대로 라면 확정판결은 뿌리부터 흔들립니다. 그러나 재심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면 최고재판소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나는 Kr 은 나카노 (中野) 역에서 있었던 연설등이 호시노씨의 행동인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열은 갈색의 신사복"을 입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 하나는 호시노씨의 목소리를 아주 가까운 곳에서 들어서 목소리로 알았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의의 색깔을 잘못 생각했다고 해도 사람을 잘못봤을리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목소리 (이격증언 耳擊証言) 은 전혀 신용할 수 없다는 것은 여러 연구를 봐도 분명합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나야 나야 사기) 에서는 전화가 오면 아들이라고 착각을 해버린다. "목소리로 알았다"라는 것은 재판소의 핑계입니다. "의혹은 피고인의 이익"이라는 철칙은 전혀 지킬 생각이 없다. 이것이 재심의 현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재심을 싸워가야 하는가. 하나는 다른 여러가지 관점에서 신증거를 내세워 재판소의 심증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심리학 감정에 의하면 기억은 비디오 같은 것이 아니라 그때의 상황이나 주관에 의해 매우 좌우되고 금방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핵심증언인 홍술은 정말 상세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몇 개월이나 지난후 아주 단기간의 돌발적으로 일어난 일을 매우 자세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부자연스럽습니다. 또한 기억은 유도에 의해 변모합니다. 심리학 감정을 "홍술조서는 허위로 만들어진 것이다"라는 증거를 내서워 재판소의 심증을 흔들여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 운동의 힘이 필요

재판소는 여론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도리에 어긋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는 여론을 재판소에 제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명 집회 혹은 토쿠시마 (徳島) 형무소 포위데모 등도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증거개시에 대해서는 33 점의 사진원본은 입수가 가능합니다. 그것을 분석해 신증거로서 제출합니다. 현장 목격자의 홍술조서를 재판소는 개시권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상식적으로 말하면 7~8 미터 정도의 가까운 거리에서 보고 있던 사람이 있었다면 그 조서는 당연히 개시해서 조사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모든 증거개시를 쟁취합시다. 증거는 공공의 재산입니다. 헌법 37 조를 보면 형사피고인은 모든 증거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헌법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로 봐서도 검찰관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숨기는 것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변호단의 주장과 운동의 힘으로 모두 같이 하나가 되어 쟁취해 나갑시다.

## 모든 증거개시 대운동 제 8 회 학습회

### 후카와 (布川) 사건.원죄와 증거개시

후카와 (布川) 사건피고 사쿠라이 쇼우지 (桜井 昌司)

4 월 17 일 히비야 (日比谷) 도서관문화관에서 제 8 회 학습회가 열렸습니다. 강사는 후카와 (布川) 사건에서 재심무죄를 쟁취한 사쿠라이 쇼우지 (桜井 昌司) 씨입니다.

모두에게 재심변호단의 후지타 죠우지 (藤田 城治) 변호사가 재판의 현재상황에 대해 보고 했습니다. "하카마다 (袴田) 재심에서는 옷에 묻었던 혈액형의 DNA 감정이 신증거가 되었다. 이 배경에는 역시 작년에 개시된 130 점의 방대한 홍술증거 전체적으로 600 점의 증거개시가 크다" "역시 증거는 검찰의 창고에 있다"고 제기했습니다.

이하 사쿠라이 (桜井) 씨의 강연요지 (사무국요약) 을 게재합니다.

## 아직까지도 나를 범인 취급하는 검찰

강연이라고 들었습니다만 그저 자신의 체험.생각을 말하고자 합니다. 조금전에 후지타 (藤田) 선생님은 “증거를 개시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만 분명히 있습니다. 내놓으면 무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카마다 (袴田) 씨의 결정이 나왔을 때 평연하게 즉시 항소를 하는 것이 검찰의 감각입니다. 저렇게 까지 명백하게 재판소로부터 “날조”라고 지적을 받고도 틀리다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그들은 씩어빠졌다. 경찰이나 검찰은 아무런 반성도 할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후카와 (布川) 사건에서는 아직까지도 저를 범인 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 거짓과 증거의 위조를 파헤친다

후카와 (布川) 사건에서는 재판관의 심증이 결정적으로 바뀐 것은 모발 감정입니다. 현장 유류 모발에 대한 감정서 중에 피해자에 관한 감정서는 없었습니다. 변호단은 “피해자의 감정”을 제출하도록 요구했습니다만 검찰관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변호단이 조사했더니 영치조서라는 서류가 있었고 “피해자의 모발의 영치 약간 감정중”이라고 써 있었다. 추궁했더니 2 주일 후에 가져왔다. 검찰이 거짓말을 하고 있던 것을 알고 재판관의 심증이 급변했다.

검찰은 “골판지 상자를 딱 열어봤더니 나왔다”고 말하길래 곧바로 “숨겼지”라고 추궁했더니 “이제는 숨기지 않는다”고 대답 하는 것에 화가 나서 검사를 호통친 적이 있습니다.

실은 스기야마 (杉山) 씨와 나의 취조를 경찰이 두개의 테입에 녹음했습니다. 재심에서는 그 첫번째 쪽을 제출해 왔다. 그러나 취조한 검찰관은 공판에서 “녹음테입이 아니다”라는 위증을 했다. 그런데 그것을 제출한 것입니다. 그것을 재생해서 듣자 변호단은 정적이 흐른후 “아 제대로 말하고 있네” 이걸 이기지 못하겠다 라는 분위기에 빠졌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자신의 기억과 틀리기에 이거 절대로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잘 들어봤더니 테입이 19 분 모자란다. “이건 내생각이 맞다. 절대로 이길 수 있다”고 확신했다. 그래서 방송관계자에게 들려줬더니 “아무래도 잡음이 들어가 있고 편집도 되었어” 열수 군데의 편집된 흔적과 끊겨진 것도 알았다. 새삼스럽게 증거개시는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 증거은닉을 용서하지 않는 운동의 힘

그들은 유죄라고 정하면 증거를 숨겨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뭐든지 합니다. “형사소송에는 검찰관이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조문은 없다”고 말합니다만 자신이 범인 취급 당할 것 같을때 무죄의 방향을 가르키는 증거가 숨겨져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허용되고 있는 점이 지금있는 원죄의 모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재판은 증거를 개시 하게끔 되었다고 말합니다만 증거 전부를 제출 하는 것은 아니다.

후카와 (布川) 사건에서도 증거가 개시된 것은 145 점이 있습니다만 그전에 히노쥬우 (日野町) 사건에서 증거목록을 재판관의 개시권고로 제출시킨 것이 컸습니다. 후카와 (布川) 사건만으로 이긴 것은 아닙니다. 2005 년 5 월에 나바리 (名張) 사건의 재심결정이란 흐름이 있었기에 쟁취한 것입니다. 우리들도 재판소에 매달마다 도리를 다해 호소해 온 것이 통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은 운동의 힘이 허무하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목소리를 올려 호소하고 있습니다. “검찰관이 증거를 숨기는 것은 있어서는 안된다”라는 여론을 만들기 위해 지금 국가배상 소송을 하고 있다. 사실이 명백해졌을 때 반드시 호시노씨를 되찾을 수 있다. 여러분 함께 노력합시다.

## 토쿠시마 (徳島) 면회일기

### 후미아키 (文昭) 68 세의 생일에



호시노 아키코 (星野 暎子)

4월 23일 산들이 신록으로 빛나고 면회실로 이어지는 돌계단 옆의 진달래도 피기 시작했다. 야마카와(山川) 씨가 준비해준 백합꽃의 머리띠와 빨간 프리지어의 목걸이를 걸고 후미아키와의 면회에 임했다. 후미아키는 편지로 4 월달 부터 우대구분으로 제 2 류로 진급한 것을 전해왔다. 면회는 한달에 다섯번 편지는 한달에 일곱번씩 쓸 수 있게 되었다. 후미아키(文昭)는 삼년간 무사고 무위반이면 받는 배지를 세개 달고 주홍색이 돋보이는 제 2 류의 명함을 차고 면회실로 나타났다.

“제 2 류 축하해. 다행이야. 마음에 여유가 생겼어. 면회와 편지 말고 좋아진 거 있어?”라고 물었다. “아키코(暎子) 도 쓴 것처럼 제 2 류집회라는 것이 있다. 3 류와 2 류의 인간이 모여 한달에 한번 집회를 가지고 있고 대부분의 수감자는 거기에 들어가. 제 2 류집회는 400 엔 정도의 과자와 음료를 사서 모이는 거야. 음악방송의 비디오를 보는데 제 3 류집회보다 길어. 모두가 일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자신들만 일을 쉬어야 한다. 다른 수감자와의 관계를 고려해 사양하려고 생각하고 있어”라고 후미아키는 말했다. 모든 것을 빼앗긴 뒤의 자그마한 선물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아두는 것이 좋다고 나는 생각했지만 “직장에서의 단결”을 후미아키(文昭) 는 우선시키려는 것이겠지.

“그밖에 제한구분 이라고 해서 나는 3 중인데 1 중이 되면 해방동에 들어가 외출.외박도 할 수 있다. 2 중도 심사를 받아 외출.외박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전화도 걸 수 있다. 전화를 걸러 가는 사람은 본적이 있지만 외출.외박을 나간 사람은 본적이 없다”

형인 하루오(治男) 씨가 말레이시아에서 돌아온 이야기 전했던 스즈키(鈴木) 콘크리트 분회 해고철회의 이야기로 화제가 부풀었던 첫날의 면회였다.

24일 이틀째의 면회. 황매화의 머리띠를 매고 면회를 했다. 오후부터는 나카초우(那賀町)의 야마카와(山川) 택을 방문하기 위해 아침 9 시 30 분 이날 첫번째의 면회였다. “지금 산이 아름다워. 삼나무와 잔폴의 콘트라스트가 최고야”라고 후미아키는 말했다. 후미아키(文昭) 가 삼년전에 전시회에 작품을 출전해서 돌아온“희망.피재당한 사람들과 함께 미래들의 2 탄”을 집에 가져가기 전에 같이 보며 이야기를 나눴다.

오키나와 (沖繩) 이야기가 나왔다. "타이라 에츠미 (平良 悦美) 씨로부터 일주일에 한번 오는 편지를 봐도 본토에 기대를 하는 것이 사무치게 느껴져. 오키나와 (沖繩) 를 전쟁을 위해 마지막 까지 이용한다 오키나와 (沖繩) 사람들의 마음과 맞지 않는 형태인 이상 오키나와 (沖繩) 전체가 일어서는 투쟁을 본토가 과제 삼아 깊어진다 개헌 저지 투쟁과 최고로 중요한 투쟁으로 인식해 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후미아키 (文昭) 는 말했다.

### 아키코 (暁子) 와 살고 있는 감동

4 월 25 일 삼일째의 면회. 4 월 27 일에 68 세가 되는 후미아키에게 "생일 축하해"라고 나는 말했다. 생일에 면회를 맞춘 것에 대해 후미아키 (文昭) 는 "고마워"라고 말했다. 클래식을 좋아하는 후미아키를 위해 차입한 전 15 곡을 들을 수 있는 오를골 카드도 이번에 처음 "감방"에서 들을 수 있었다. "아는 것은 터키 행진곡과 교향곡 41 번 슈피터뿐이었다"고 후미아키는 말했다.

"건망증이 있긴 하지만 집중력이나 사물을 깊게 생각하는 점으로 보서는 오히려 깊어졌다. 체력적으로는 40 대다. 아키코 (暁子) 와 함께 살고 있다는 것과 모두와 함께 싸우고 있기 때문이야"라고 후미아키는 말했다.

아사가야 (阿佐ヶ谷) 에서 열렸던 "그림과 시전"의 앙케트복사도 도착해 있었다. "그림의 감상 뿐이 아니고 내가 원죄로 구속당하고 있는 것이나 아키코와 함께 사는 것에 대해서도 꽤 써있었다. 그림이나 시가 가지고 있는 힘의 대단함을 느꼈어. 나의 그림은 아키코 (暁子) 를 조금이라도 달래기 위해 그리고 있는데 그림을 그려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라고 후미아키는 말했다. 모두의 감상이 후미아키에게 활기를 준다. 물론 나도.

이야기는 오키나와이야기로 돌아왔다. "오키나와 (沖繩) 의 해고 철회 투쟁을 적극적인 투쟁으로 국제연대의 싸움으로서 투쟁하고 있다"고 내가 말하자 후미아키는 "고별적 해고 철회를 전체의 아베 (安倍) 정권을 흔드는 투쟁으로서 몰두하는 것이 최근 개척해 온 지평이야"라고 말했다. 호시노를 되찾는 싸움도 오키나와 (沖繩) 투쟁 자체이며 아베 (安倍) 정권을 몰아넣는 투쟁인 것을 서로 확인하며 이날의 면회를 마쳤다.

..... "....."  
.....